

Kodex^{ETF}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



Executive Summary

- 뉴욕 3대 지수는 소매판매 호조와 개별 기업 호실적에 힘입어 6주 연속 강세
- 높아지고 있는 ‘공화당 장악’ 베팅. 단, 11/5전까지 대선 트레이딩은 지양할 필요
- 매크로/대선에 무관하게 시전력난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 인프라 및 산업재 주목

●●●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

미국 9월 소매판매
서프라이즈로
3분기 GDP 추정치
상향 조정

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.4% 증가하며 예상치(0.3%)를 상회했다.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가 전월비 0.7% 증가하면서 견조한 소비 수요가 확인됐다. 한편, 9월 산업생산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(-)0.3% 감소해 예상을 하회했다. 단, 컴퓨터와 반도체 부문 생산이 전월비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헤드라인 부진 영향은 제한됐다. 경기연착륙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넷플릭스, TSMC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뉴욕 3대 지수는 6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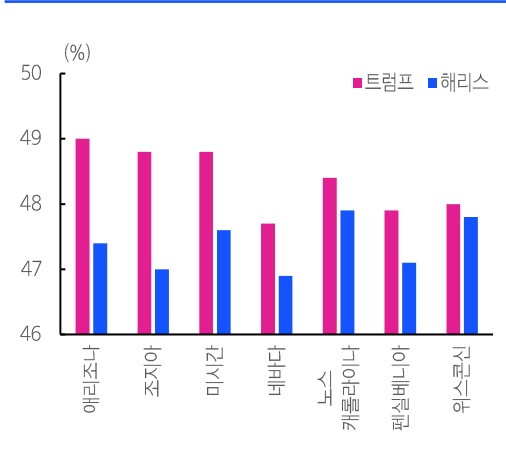
본격적인 어닝 시즌
돌입으로 이익 민감도 ↑

이번 주는 S&P 500 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익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 이 중 록히드마틴(22일, 이하 현지시간), 테슬라(23일)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관심 대상이다. 23일에는 미국 12개 지역에 대한 경제 상황을 담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. 9월에 이어 경기 둔화가 감지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리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. 단, 통화정책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(10/26-11/8) 돌입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경계성 발언이 나올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

대선 및 상하원
선출 결과 확인 전까지
대선 트레이딩은 지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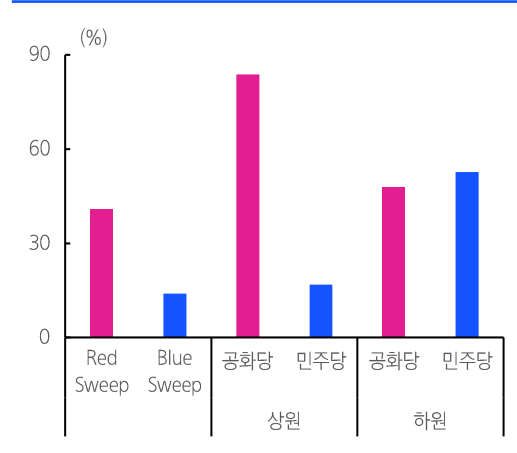
한편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테마 트레이딩이 성행하고 있다.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(49.2%)가 트럼프(48.3%)를 앞서고 있으나, 애리조나, 조지아 등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 우위를 점하면서 트럼프 당선 베팅이 강화되고 있다(트럼프: 60.4% vs. 해리스 39.4%, 20일 Polymarket 기준)[그림 1]. 주지하다시피 11월 5일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의원(전체 100석 중 34석)과 하원의원(전체 435석)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[그림 2]. 분점정부 수립 시 대통령 공약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어 대선 전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추세 베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.

[그림1] 트럼프: 경합주에서 우위



※ 자료 : RealClearPolitics,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[그림2] 공화당 장악 시나리오 베팅 ↑



※ 자료 : Polycmarket,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Kodex 생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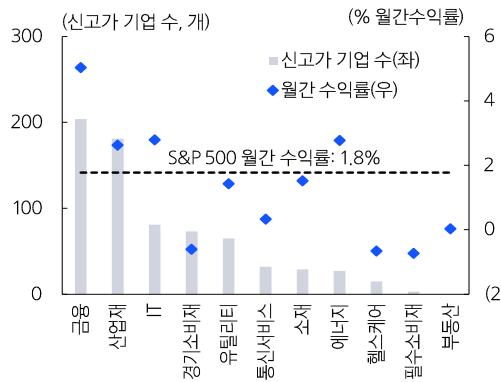
빅테크 SMR 투자로
부각되는
전력 확보 중요성

지난주 구글과 아마존의 원전 계약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소형모듈원자로(SMR) 테마가 급등했다. 빅테크 기업들의 SMR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하지만 반도체 고점 우려 속 빅테크 기업들의 SMR 투자 확대 소식이 해당 테마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. 시장의 관심이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데이터센터 가동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. 탄소 중립 기조 속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을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면서 해당 테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.

52주 신고가 기업 수가
늘어나고 있는
산업재도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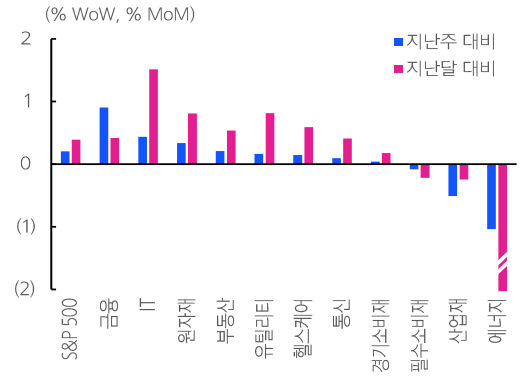
한편 산업재에서 다수의 신고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[그림 3]. S&P 500 내 기여도가 가장 높은 IT의 신고가 기업 수는 8월 71개 → 9월 68개 → 10월(18일까지 분) 81개로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, 산업재 내 신고가 기업 수는 8월 114개 → 9월 189개 → 10월 181개로 늘어나고 있다. 현재 데이터센터에 집중된 전력 설비는 향후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초과 수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산업재 업종에도 주목이 필요하다.

[그림3] S&P 500: 신고가 업종 및 수익률



※ 주 : 월간 수익률은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분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[그림4] S&P 500 12MF EPS 변화분



※ 주 : 10월 18일 기준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

01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(종목코드:487230)

전력인프라 밸류체인(발전>송배전>데이터센터>전력효율화) 핵심 10개 기업 선별

- 원자력, 풍력, 송전, 배전, 건설, 냉각, 공조 등 핵심 사업의 대표 기업에 투자
- 주요 투자 대상 : Constellation Energy, Arista Networks, GE Vernova 등
- 총보수 : 연 0.45%(운용 0.419%, AP 0.001%, 신탁 0.02%, 사무 0.01%)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02 Kodex 미국S&P500산업재(합성) (종목코드:200030)

미국의 방산, 항공우주, 제조와 건설 그리고 운송까지, 산업재 전반에 투자

- 미국의 방산 투자,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및 리쇼어링의 수혜가 전망되는 산업재
- 주요 투자 대상 : GE Electric, Caterpillar, RTX, Uber 등 (기초지수 기준)
- 합성총보수 : 연 0.3293%,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022% 발생, 위험등급 : 2등급(높은 위험)

03 Kodex AI전력핵심설비 (종목코드:487240)

전력설비의 핵심인 변압기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10개 대표기업 선별

- 국내 AI전력설비 Big 3인 LS그룹, HD현대일렉트릭, 효성중공업에 모두 투자
- 주요 투자 대상 : HD현대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LS ELECTRIC 등
- 총보수 : 연 0.39%(운용 0.359%, AP 0.001%, 신탁 0.02%, 사무 0.01%)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